

KTX 2년... 전남 서남권 관광객 62만명 증가

지난해 상반기 332만여명 방문...개통 전보다 23% 늘어

1093억 생산유발·1700명 고용창출...쇼핑·의료 여류 미미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전남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역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4일 발표한 '호남고속철 개통 2년 전남 서남권 주요 변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호남고속철 1단계 구간(웅산역-광주송정역) 개통으로 수도권과 전남 서남권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장흥·강진·완도·진도·해남지역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는 332만명이다.

KTX 개통 전인 2014년 같은 기간 270만명보다 22.7%가 증가했다. 이는 완도군과 신안군, 장흥군의 주요 관광지인 입장객 수가 미집계된 것으로 실제 관광객 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를 운영하는 '남도한바퀴'가 KTX 정차역인 목포역과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계 운영된 점도 관광지 방문객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쇼핑 및 의료 분야의 경우 수도권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역류효과'가 우려됐으나 실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남 서남권의 대형소매점 매출은 5727억원으로, 방문 관광객 소비지출 등에 힘입어 2014년(5297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2015년 전남 서남권 지역민의 관내 진료실적은 54만명으로 2014년(54만1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관의 진료실적 역시 42만5000명으로 2014년(42만명)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의

소비지출 효과로 전남은 1093억원(전국 38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700명(전국 429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목포본부는 향후 과제로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광주송정-목포)의 조속한 완공을 꼽았다.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중 무안공항 경유와 관련해 전라남도과 기획재정부간 견해차로 지연되고 있는 나주-목포 구간의 고속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외에도 중작역인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건립, KTX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1.10 (-6.41)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 코스닥 625.49 (-3.03)

↑ 환율 (USD) 1121.90원 (+6.60)



한전은 지난달 29일~4월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린 '2017 제네바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2개의 발명품을 출품해 금상 2개와 특별상 4개를 수상했다. 참가한 한전직원들이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전재광>

한전, 제네바 발명전시회 6관왕

신개념 아치형 맨홀 등 2개 출품...금상2·특별상 4개 수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Palexpo)에서 열린 '2017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에 2개의 발명품을 출품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상 2개와 특별상 4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40개국 1000여점이 출품됐으며 한전은 자체개발한 '디젤엔진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제거 시스템'과 '신개념 슬립타입 아치형 맨홀'을 출품했다.

'디젤엔진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제거 시스템'은 발전용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촉매 및 필터를 이용해 제거하는 콤팩트형 친환경 시스템으로 금상과 대만 발명·특허 협회 특별상, 태국 발명가협회 특별상 등 다수 수상하였다.

'신개념 슬립타입 아치형 맨홀'은 금상 및 이란발명협회 특별상을 수상하였

으며 맨홀 두께를 감소시킴에 따라 콘크리트 사용량이 줄어들어 제작비 절감 및 맨홀 경량화로 도로점용 면적도 최소화 되어 점용료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력맨홀 뿐만 아니라 통신맨홀, 상수맨홀 등에서도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자체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렸으며, 기술이전 및 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발명가협회장 알리레자(Alireza)를 비롯하여 각국 발명가 협회측 관계자 면담을 통해 'BIXPO 2017 국제발명대전'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세먼지 기승...휴일 잇은 '삼성 광주사업장'

공기청정기 라인 풀가동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을 맞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공기청정기 생산 라인이 주말도 없이 풀가동되고 있다.

4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사업장의 공기청정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증가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악화된 대기환경 속에서 건강을 염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시한 '블루스카이 6000'이 판매 돌풍을 일으키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 제품의 인기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청정기능과 가습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가습기 위생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데 있다.

2014년 첫 출시된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는 초미세 먼지와 0.02μm(마이크로



봄 황사철을 맞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올해 1분기 공기청정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면서 생산 라인이 주말도 없이 풀가동되고 있다.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광주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공기청정기 생산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제공>

미터) 크기의 나노 입자까지 99% 걸러주는 강력한 공기청정 능력으로, 출시 후 판매 돌풍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 광주사업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출시한 '블루스카이 6000'과, 거실과 주방을 한꺼번에 정화할 수 있는 대용량

'7000', '이지 무빙휠' 채용으로 이동이 간편한 '5000', 아기방에 적합한 '3000' 등 다양한 시리즈를 생산·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공

기청정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주말까지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다"며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생산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3월 주식 거래·대금 모두 증가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월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5억453만주에서 5억7474만주로 7021만주(13.92%)가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조1286억원에서 2조7816억원으로 6530억원(30.68%)이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전국대비 거

래량은 2.03%, 거래대금은 1.45%로 거래 비중 변동이 전월대비 미미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외국인인 대형주 중심 매수세 유입 등으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닥시장 거래 상위종목은 KD건설, 셀루메트, 세종텔레콤, 코디엔, SBI인베스트 순이고, 거래대금은 안랩, 셀트리온, 모바일에플라이언스, 신신제약 순으로 높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월 소비자물가 광주 하락·전남 보합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광주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남은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0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대비는 2.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0.6% 하락했고, 전년 동월대비는 8.5%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0.2% 하락

했고, 전년보다 3.4%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대비 10.2% 올랐다.

3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02로 전월대비 보합세고, 전년 동월대비 2.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는 4.1% 상승했다.

제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2.9% 각각 상승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